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인터뷰

“호남 통합반대 기류 고민...분당 안될 것”

대담=임동욱 서울취재본부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최대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내부 반발을 무릅쓰고 당권을 장악했지만 현실은 참담하다. 국민의당 지지율은 역대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고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을 둘러싼 내부 갈등은 분당까지 거론되는 등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국민의당이 이번 국면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내년 지방선거 참패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안철수 대표의 정치 생명이 물론 어렵게 구축된 다당제의 근간과 호남에서의 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 경쟁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광주일보는 13일 국회 본청 국민의당 대표실에서 안 대표와 만나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장담해서 다당제 구축했고 탄핵도 국민의당이 가장 먼저 앞장섰다. 희생과 양보. 도전을 통해 일관되게 자유한국당의 근간을 축소시키려 노력해왔다. 이런 나를 두고 YS(김영삼)식의 3당 통합을 거론하는 것은 모험이다. 또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미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대선을 염두에 두고 머리 굴리는 어리석은 사람 아니다.

-통합 선언의 시기는
▲다음 주까지 통합 관련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광주 방문에서도 처음 듣는 의견이 있었듯이 전국 여론을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하는 (통합)안을 마련할 것이다. 여기에 당 이견도 조율해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2~3월까지도 통합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빠르게 힘을 합치면 최선이다.

-통합 방법으로 전당원투표제 등이 거론된다.
▲당을 걱정하는 분들이 한두 가지씩 말씀하시고 있다. 일단 나머지 지역 방문을 통해 의견을 듣고 방법을 찾겠다.

-안 대표의 통합 비전은.
▲제가 생각하는 3대 비전은 지역구도 타파, 이념 및 진영논리 극복, 대한민국 정치의 세력·인물교체다. 그 방향으로 나간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도와주실 것으로 믿는다. 바른정당과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이 원내 1당이 될 수 있다. 이를 막아내야 한다.

-통합되면 광역단체장 몇 석이나 가능하다고 보나.
▲아직 진용이 갖추어지지 않아 말하기가 그렇다. 하지만, 통합되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해볼 만 하다. 제3지대가 뭉쳐지면 광역단체장뿐 아니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등의 출마자들이 몰리면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현재 국민의당 지지율이 4~5%다. 반전의 계기는.
▲본격적인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선거공학적 연대가 아닌 3대 비전, 반 자유한국당 연합 등 통합의 비전과 방향을 국민이 보시면 지지해줄 것으로 본다.

-바른정당의 태도가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 하지만, 조만간 광주를 방문, 통합의 진정성을 보일 것이다. 또 5·18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에 힘을 보태는 등의 과정을 통해 호남과 시대에 대한 진심을 제시할 것이다.

-바른정당에 너무 저자세로 끌려가지 않나.
▲김대중 대통령도 과거 꼬마 민주당을 많이 배려하며 통합을 이루지 않았다. 배려와 이해가 통합을 이끈다.

-통합에 반대하는 호남 의원들이 탈당 등을 통해 민주당과 연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지 않을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 민주당이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

-내년 지방선거나 보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나.
▲뭘가 됐든 당에 도움이 된다면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재보궐이든, 다 나가겠다. 뭇짓 하겠다.

/정리=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바른정당과의 통합밖에 길이 없다.
▲원내 3당(국민의당)은 전국 선거 전 외연 확장을 못하면 사라진다. 대한민국 선거 역사가 증명한다. 현재 호남은 양자 대결 구도이나 전국은 4자 대결 구도다. 기존 거대 양당 구도에서 제3지대가 반반으로 나뉘었다. 결국 3자 구도를 만들어야 선거 승리가 가능하다. 전국의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3자 구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크나 호남은 통합 반대 기류여서 고민이다. 저는 전국 선거 지휘할 대표로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

-바른정당과의 정체성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바른정당 의원이 20명일 때는 정체성이 다른 부분이 있었다. 당시 저는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11명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정체성이 다른 분들이 거의 떠났다. 이번 호남 방문에서도 바른정당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호전됐다는 점을 느꼈다.

-바른정당에서 단계적 통합론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2명 정도가 선 국민의당 통합, 후 자유한국당 통합론을 제기한 것이지만 당론이 아니다. 확인했다. 바른정당이 단계적 통합론을 채택한다면 국민의당과 통합은 없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반(反) 자유한국당 연합이기 때문이다. 제3지대 정당의 세력을 확대, 자유한국당을 3당의 극우 보수정당으로 끌어내릴 마지막 기회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개혁이다.

-호남의 반발이 크다.
▲시각차가 크다.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선거 연대 정도로 충분치 않느냐는 입장이다. 하지만,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220개 선거구에서는 선거연대보다 통합을 원한다. 선거연대는 총선이나 대선처럼 투표를 한 번 해야 할 때 유효하지만 지방선거(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비례대표 등)는 6번 투표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환란은 물론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설득력이 있다.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끼리는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부탁할 것이다. 외연확대 없는 당내 결집만으로 과거 3당들은 모두 사라졌다.

-분당을 불사하고 통합 추진하냐.
▲시각차가 크지만, 분당은 안 될 것이라고 본다. 누구도 분당을 바라지 않는다. 이번 지방선거 잘못 치르면 국민의당은 사라진다. 이점을 좀 더 해결 방법을 찾

바른정당 정체성 다른분 다 떠나 지방선거 잘못 치르면 당 사라져 차기대선 염두에 두고 통합 안해 통합되면 모든 지역 선거 해볼만 당에 도움 된다면 무엇이든 할 것

겠다.
-통합론이 차기 대선 구도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말이 있다.
▲2011년에는 박원순 시장 지지를 통해 야권 승리의 전기를 만들었다. 2012년 대선에는 박근혜 당선 막으려 양보했다. 2014년에는 지방선거 패하면 미래가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통합해서 승리를 만들었다. 국민의당



13일 오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민의당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민의당 정체성 확립을 위한 평화개혁세력의 진로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국민의당 평화개혁연대 “합의 이혼 고민할 때”

천정배 “바른정당과 통합은 적폐”
광주 DJ센터서 토론회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안철수 당 대표에 대한 호남지역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호남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통합 반대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광주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는 “합의이혼을 고민할 때”라는 주장마저 나오는 등 국민의당의 분당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 13일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사건 관련, 자료를 주성영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보했다고 시인하면서 안 대표의 통합론을 바라보는 호남민심도 싸늘해져 가고 있다.

합반대가 압도적이며, 통합할 경우엔 개혁 통합이 아니라 적폐통합이 될 것이다”며 통합론에 강하게 반대했다. 천 의원은 이어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통합은 불가능한데 계속 고집을 부리면 당의 분열이 더 커져 그나마 남아 있는 국민의당 지지율도 떨어질 것이다”면서 “이쯤에서 통합하려는 고집을 내려놓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을 상대로 거짓 제보를 해서 정치공작에 가담한 사람(박주원 최고위원) 밑에서 국회의원 노릇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호남과 멀리하러’는 세력과 통합을 하겠다는 당에서 국회의원 노릇하고 있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바른정당과 통합 시도를 중단하고 개헌 등 시대적 요구 과제에 관심을 돌리도록 안 대표에게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당 평화개혁연대 광주·전남토론회에서는 바른정당과 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평화개혁연대를 준비하고 있는 천정배, 조배숙 의원과 국민의당 광주시당위원장 등을 맡고 있는 최경환 의원, 정동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지난 6일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인 이날 토론회에서 천정배 의원은 “국민의당 39명의 국회의원 중 3분의 2가 넘는 의원이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이것이 민심이고 당심이다”면서 “호남은 통

합반대가 압도적이며, 통합할 경우엔 개혁 통합이 아니라 적폐통합이 될 것이다”며 통합론에 강하게 반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기초 발제를 맡은 최영태 전남대 교수는 발제문 소재목을 ‘합의이혼을 고민할 때’라고 붙인데 이어 “국민의당이 집권당은 아니지만 범민주 세력의 일원으로 국회 캐스팅보트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

이병훈 민주 동남을 위원장 광주시장 출마 선언

지난 대선 문재인 대통령후보 광주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아 대선 승리에 힘을 보탰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동남을 지역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 광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했고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30년간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시민의 애환을 함께 한 공직 경험과 지난 6년간 정치 경험은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줬다”며 “이력보다는 현장을 잘 아는 현장중심 행정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Daewon Travel featuring winter travel packages. It lists various tours such as '겨울 전세열차 상품' (Winter Train Package) and '정기열차 상품' (Regular Train Package), along with their prices and departure dates. The ad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Daewon Travel and mentions their partnership with KORAIL.